

# ‘살신성인’ 표상 고 정재훈 중위 추모

## 육군 22사단 21주기 추모식 거행 ... 북천강 도하훈련시 부하 2명 살리고 순직

고성군 북천에서 전술훈련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린 부하 2명을 구하고, 목숨을 잃은 고 정재훈 중위를 기리는 추모식이 지난 16일 울곡부대 신병교육대에 세워진 고인의 동상 앞에서 엄숙하게 거행됐다.

육군 22사단은 지난 16일 신병교육대대에서 사단장을 비롯한 부대 장병 및 유가족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 정재훈 중위 21주기 추모식을 갖고, 그의 숭고한 살신성인 정신과 참된 부하 사랑을 기렸다.

지난 1989년 학군 27기로 임관해 55연대 소대장으로 임무수행을 하던 고 정 중위는 1990년 3월 16일 연대 전술훈련평가시 북천강을 도하하던 중, 급

류에 휩쓸려 익사위기에 처한 김명소 상병 등 중대원 2명을 구하고 살신성인한 참군인이다.

정부는 고인의 정신을 높이 기려 보국훈장 광복장을 수여하고 중위로 1계급 추서했으며, 그의 유해를 대전 국립묘지에 안장했다.

육군 22사단은 고 정 중위의 군인정신을 기리기 위해 모교인 단국대 교정과 울곡교육관 등 전국 3개소에 고 정 중위의 동상을 세웠다. 또 훈련병들에게 헌신의 군인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사단 신병교육대대에 그의 이름을 딴 ‘재훈관’을 건립하고, 매년 3월 16일 추모식을 거행하고 있다.

최광호 기자



육군 22사단은 지난 16일 신병교육대대에서 고 정재훈 중위 21주기 추모식을 갖고, 그의 숭고한 살신성인 정신과 참된 부하 사랑을 기렸다.

# 미역 채취하던 70대 노인 실종

## 거진항 북방파제에서 자전거만 발견 ... 속초해경 수색작업

거진항 북방파제로 미역을 채취하러 집을 나간 70대 노인이 나흘째 귀가하지 않아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3시께 고성군 거진읍에 거주하는 탁 모씨(71세)가 거진항 북방파제 입구 주변에 미역을 채취하러 간다며 자전거를 타고 나간 뒤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탁씨의 실종은 같은날 오후 4

시 30분경 마을주민이 방파제에 탁씨의 자전거만 세워져있고 사람이 보이지 않자 가족에게 연락하면서 알려졌다.

소식을 전해들은 탁씨의 동생(69세) 등 마을주민들이 주변을 수색했으나 찾지 못하고, 오후 6시30분경 인근 지구대에 탁씨의 미구가 사실을 신고했다.

이에 따라 속초해경은 122구조대와 파출소 요원을 현장 출동해 수색에 나섰다. 특이점을 발

견하지 못했다.

속초해경은 다음날인 15일부터 50톤급 경비함정과 RIB보트를 이용한 해상수색과 122구조대 요원들의 방파제 외항 수중수색을 실시하는 등 대대적인 수색에 나서고 있으나, 아직까지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

탁씨는 약 170cm의 키에 짧은 머리로 집을 나갈 때 검정색 잠비에 검정색 바지, 운동화를 신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광호 기자

# 경찰이 어민들 컴퓨터 고쳐줘

## 속초해경, 어민 고장 PC 무료수리 실시



속초해양경찰서가 지난 14일 거진항 일대 어민들을 대상으로 고장난 컴퓨터 무상수리 봉사활동을 펼쳤다.

속초해양경찰서가 지역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컴퓨터 출장 수리 및 점검에 나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속초해양경찰서 수리봉사팀은 지난 14일 고성군 거진항 일대에서 PC와 선박용 통신장비 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을 대상으로 ‘행복나눔 PC 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활동을 통해 속초해경 봉사팀은 고장난 PC 드라이브 재설정, 백신프로그램 설치, 바이러스 검사와 전산장비 등 6대를 수리했다.

또 현장 수리가 불가능한 컴퓨터 2대는 경찰서내 정비실로 이동시켜 불용장비 부품을 재활용해 수리해줬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영세어민, 저소득층의 경우 컴퓨터가 고장나더라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쉽게 수리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수리 서비스에 나섰다”며 “앞으로 매분기마다 사전 수리장비 소요조사를 통해 적극적인 생활지원 봉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 고성군 자율방범연합대 정기총회

## 신임 연합대장 △현내면대 김춘택 △죽왕면대 정명식, 김수임(여) △토성면대 임기복

고성군 자율방범연합대(대장 김형모)는 지난 14일 오후 6시 30분 간성읍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임원 및 회원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0년 결산보고 및 2011년 주요사업계획 수립등 당면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논의했다.

또 3개 읍·면 연합대장 위촉식 및 기타 내용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임원 및 회원들은 “고성 발전을 위해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내고장 파수꾼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



고성군 자율방범연합대는 지난 14일 임원 및 회원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자”고 결의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신임 연합대장으로 △현내면대 김춘택 △죽

왕면대 정명식, 김수임(여) △토성면대 임기복씨가 등이 합의추대로 위촉됐다. 박승근 기자